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노화로 오는 질병 곧 퇴치될 듯

알츠하이머 · 치매 등

영생은 인류가 유사 이래 계속 추구해 온 최대 희망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개념일뿐이다. 과학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하면서 최신 정보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들이 이 나라에는 유독 매우 많은 것 같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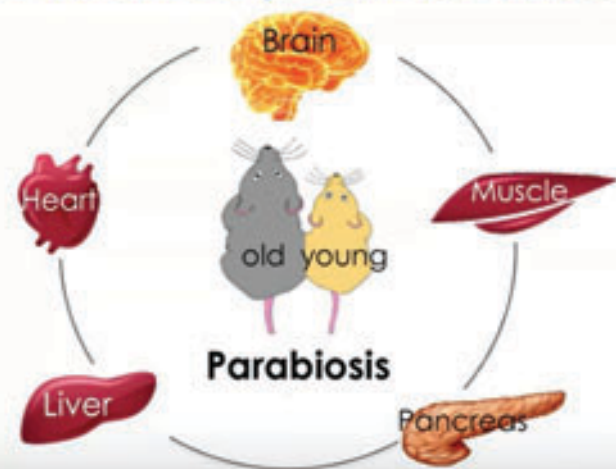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류는 영생을 즐기게 추구하는가? 삶이란 고통의 연속임을 알면서도 영생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아는 자 있는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기억 속에 영생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며, 과학적으로 볼 때 영생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물질을 바이오톤(biotr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인류 문명, 영생 의지의 산물

스티븐 케이크(Stephen Cave) 박사는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영생을 향한 의지라고 통찰했다. 그는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수석연구원 겸 레버홀 미래지능연구소장(Executive Director of the 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and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책 "Immortality: The Quest to Live Forever and How It Drives Civilization"은 국내에서 《IMMORTAL 불멸에 관하여》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찬란한 문명은 당시 사람들의 영생을 향한 의지로 발전된 것이라고 말한다. 화화의 발달을 가져온 연금술의 목적도 영생의 묘약을 제조하는 데 있었고, 만리장성도 (진시황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도 영생의 묘약을 찾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노화물질 탐구 및 제조, 유전자 프로그래밍 등을 들 수 있

A fountain of youth for mice?



패러바이오시스(병체결합)로 혈액 교환하는 그림 출처: <http://youtu.be/CsECS5qsGLs>

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에 병동으로 보존된 자신의 육체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고 냉동인간을 택한다거나, 자신과 같은 복제인간이나 아바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된 자신의 의식과 기억을 업로드하는 등등도 그러한 영생을 향한 문명의 발전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

핏속에 항노화물질 있다

이러한 것들 중 최근 매우 흥미로운 것은 노화의 원인과 항노화물질의 발견에 관한 것이다. 노화학자들은 노화는 질병과 달리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망자의 25퍼센트가 질병에 상관없이 노쇠해서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 노화학자들이 겨우 아는 것은 핏속에 항노화물질이 있으며, 곧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뿐이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루드윅(F.C.Ludwig)은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액을 연결하는 실험(패러바이오시스 parabiosis)에서 늙은 쥐는 젊어지고, 젊은 쥐는 늙어지는 결과를 얻어냈다.

2011년에는 빌레다(S.Villeda)가 패러바이오시스를 이용해 늙은 쥐의 혈액에서 젊은 쥐의 뇌세포 재생을 억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CCL-11호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하버드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원인 에이미 웨거스(Amy Wagers)와 공동 연구자들은 오랜 노력 끝에 젊은 혈액에 있는 성장분할 요소인 GDF-11이 항노화 작용을 하는 효능 효과 있음을 알아냈다.

GDF-11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되는 물질이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GDF-11을 보충만 해주면 늙은 쥐를 젊은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GDF-11을 늙은 쥐한테 계속 주입했다니 없어졌던 근육도 다시 생겼을 뿐만 아니라 줄어들었던 인지능력은 물론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되찾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회춘의 비밀을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미국 노바티스연구소의 데이비드 글래스(David Glass) 연구팀이 GDF-11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했는데,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GDF-11은

회춘 효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서적: 유병팔 교수의 125세 건강장수법, 에디터 판)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로 회춘의 비밀이 밝혀진 줄 알았는데 좋았다 말았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핏속에 노화의 비밀을 밝히고, 회춘의 비밀을 여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이고, 이 사실은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빅뉴스가 될 것이다.

마음먹는 대로 변하는 피

생리학자나 노화학자들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은 피가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다. 피가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조금만 인간을 관찰해도 알 수 있음에도 마음과 물질을 별개로 보는 전통 현대 의학의 입장에서는 놓치기 쉽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신상관(心身相關) 의학이 근래에 대두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내용이 미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며, 단지 마음과 피가 떨어져 뭘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만 어렵듯이 알고 있을 뿐이다.

승리제단에서는 36년 전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한다는 것을 처음 주장했다. 당시 마음의 변화에 따라 피가 변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과학자나 의학자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1981년 승리제단 창교(創敎) 이래 계속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영생학을 주장해 왔지만 주목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었다.

영생학의 핵심은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영생의 피로 변해서 영생의 몸이 되고,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을 피로 변해서 죽을 몸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피가 변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용어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놀라거나 근심걱정이 많을 때,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는 말을 쓰곤 하는데 이는 놀라거나 근심걱정을 하는 그 순간 피가 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이 사색, 즉 죽은 사람 얼굴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간이 콩알만 해졌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간담이 서늘하다 등등 마음에 따라 오장육부가 변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에서도 마음의 변화에 따라 피와 몸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아직 과학이 영생학의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노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하면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9)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과정, 피가 바뀌는 과정, 몸이 바뀌는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한데 과거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를 입는다, 천당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나무와 같이, 나라고 하는 경지를 넘어선 생

각을 늘 가져야,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결단코 버려야 하는 것이다.*

구도의 길

선구자 향한 돌팔매질

일구팔공년 고3 때 일이다. 여름방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더울 때였다. 인문반 학생 하나가 점심시간에 운동장 울타리 역할을 하는 큰 나무 그늘에서 눈을 감고 앉아서 명상을 하였다. 중학교 때만 해도 점심시간만 되면 얼른 밥 먹고 운동장에 우르르 나가 공을 차곤 했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운동장은 사막과 같이 적막감만 흐를 뿐이다. 그래서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운동장이기에, 누군가가 운동장 모퉁이의 나무 그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던들 고딩들의 눈에 될 수가 없었다.

명상 중인 친구 향해 돌 던지다

어느 날 급우 중 한 명이 명상하는 친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소리 질렀다. “저것 봐, 저것 봐!” 점심시간이었다. 학교건물 그늘 밑에서 쉬고 있던 급우들이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명상하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교실 안까지 들려왔지만 정작 명상하는 친구는 들은 체 만 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이다.

필시 낮설고 일상에서의 일탈로 느낀 나머지 돌을 들어 명상하는 친구를 향해 던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축구장이 있는 운동장은 너무나 넓었고 던진 돌은 절반도 못 날아갔다. 그러자 너도 나도 멀리던지기 시작하듯 돌을 집어 들어 던지기 시작하였다. 교실 안에 있던 급우들도 운동장

으로 뛰쳐나왔고, 순식간에 떼 지어 다니는 송사리처럼 되어 명상하는 친구를 향해서 돌진하였다.

송사리 떼(?)의 급습을 받은 친구는 그제야 명상에서 깨어나 자리를 털고 교실로 귀환하였다. 이후 급우들 가운데 몇몇은 명상하던 친구를 가리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고교 졸업 후 2년째에 크리스티안무르티(철학자)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명상서적을 읽고서야 명상하던 친구의 뜻은 모습을 떠올리며 ‘역시 멋있는 선구자였구나!’ 라고 인정하였다.

조희성 구세주를 향한 돌팔매질은 필설로써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가혹하다. 그분이 이 세상에 없는 영생학을 논하면서 기독교 종교에 도전하니 위협을 느낀 세력들이 온갖 험담과 퍼뜨린 모함도 많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이슬람 신을 내려 현금을 받았으니 사기라고 고소하고, 제단에 나오다가 중도에 그만 둔 신자들을 죽여서 암매장하였다고 밥의 심판을 구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음에도 종교의 교리를 문제삼아 위법판결한 것은 반헌법적인 처사임에 분명하고, 배교자들에게 속아 허위사실을 기초로 하여 고소한 자들도 참으로 양심이 불량한 자들임에 틀림없다. 선구자들은 못 돌팔매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마음이 좀 편하겠다.*

박태선 기자

6월은 보광의 달! 인류 구원위해 보광하신 뜻을 되새깁시다!

젊은 피가 노화된 뇌를 젊게 만들어



위시스코레이(Tony Wyss-Coray)교수

젊은 사람의 피가 노화된 쥐의 뇌세포를 젊게 만드는 실험이 성공했다.

토니 위시스코레이(Tony Wyss-Coray)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는 젊은 사람의 피를 노화된 늙은 쥐(치매가 걸린 쥐)에 투입하여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뇌에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알츠하이머병 초기 상태인 환자들에게 주입하였다. 매주 1회 4주간 주입 후, 6주 후에 다시 반복하는 실험인데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위시스코레이 교수는 2015년 테드강연(How young blood might help reverse aging. Yes, really/ Tony Wyss-Coray)에서 위에서 언급한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화에 관련된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youtu.be/CsECS5qsGLs>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